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와 의 관계

구옥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Interest and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of the MZ Generation Nursing Students

Ok-Hee Koo

Professor, Dep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22년 8월-9월 C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치적 관심 3.35점(최대 5점), 경제적 관심 3.76점(최대 5점), 사회문화적 관심 4.15점(최대 5점), 간호직 유지의도 3.40점(최대 5점)이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치적 관심과 사회문화적 기술의 상관계수($r=.385, p<.01$)가 높았고, 경제적 관심과 전체 사회문화적 관심이 가장 상관계수($r=.534, p<.01$)가 높았다. 간호직 유지의도와 의 상관관계는 사회문화적 실천의지($r=.158, p<.01$)와 태도($r=.131,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직 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을 포함한 반복연구와 전문 직업으로 간호직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태도와 실천의지를 포함한 체계적이기도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키워드 : MZ세대, 간호대학생,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 간호직 유지의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nterest, economic interest, sociocultural interest and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against 291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C city from August to September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study showed political interest 3.35(maximum 5 points), economic interest 3.76(maximum 5 points), sociocultural interest 4.15(maximum 5 points), and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were 3.40(maximum 5 points). In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olitical interest and sociocultural skill($r=.385, p<.01$) was high, and economic interest and overall sociocultural interest were the most correlated($r=.534, p<.01$). For the correlation with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sociocultural behavioral intention($r=.158, p<.01$) and attitude($r=.131, p<.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repeated studie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interest as variables influencing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and future research on systematic and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including sociocultural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 are suggested so the nursing job can be maintained for longer time as a profession.

Key Words : MZ generation, Nursing student, Political interest, Economic interest, Sociocultural interest,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s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3.

*Corresponding Author : Ok-Hee Koo(koh0528@bu.ac.kr)

Received November 13,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3

Revised December 26,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981년부터 1995년 출생까지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하고 1996년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Z세대로 본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격변기로 글로벌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성장하여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평균지향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1]. 이에 비해 Z 세대는 AI가 보편화 되고 양적 성장이 멈춘 시기에 성장하여 나만의 재능과 개성을 인정받기 위해 경쟁하며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활용에 적극적이고 능숙하며 능력지향 성향을 갖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1,2]. Z세대는 청년 인구감소와 경제 불황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투자 및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방식의 홈스쿨링, 원격교육 및 온라인 교육과 같은 변화된 방식으로 교육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화가 더 자연스럽게 온라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스트리밍과 클라우드의 보편화 및 메타버스의 대중화 기술을 접하면서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수용하고 소비 및 재생산하고 있는 세대이다. 실제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구분 없이 사회·정치적으로 젠더평등 및 갈등에 대한 문제나 지구온난화와 플라스틱 규제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2].

세대론은 그 세대가 가진 전반적인 경향을 알고 연구하는 이론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1] 사회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알아보는 것은 현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는 MZ 세대가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치적 관심은 정치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말하며 정치관련 기사나 뉴스, 타인의 의견이나 태도, 정치적 이슈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의미한다[3]. 정치적 관심은 정치성향, 정치효능감, 정치의식 등의 유사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지식, 정치문제, 정치과정 및 정치행동, 정치제도 및 정책, 정치인과 체제 등 정치적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지각하는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또는 행동적) 경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2]. 정치

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치지식을 확보하려 하고 이러한 정치지식은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유도하여 숙련된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4]. 미래 간호의 주역인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제공과 합리적인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치적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의 개척과 활발한 여러 형태의 지식획득을 위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 확산, 활용하여 경제전반의 지속적 성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살고 있다[5]. G20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도 인구저성장, 취업률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간호대학생도 경제문제에 대한 건전한 의식이나 태도, 행동 등을 갖추고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그들의 경제적 관심을 파악하는 것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발생 가능한 경제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6]을 지닌 미래 리더로서의 자질 형성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현상과 관련된 물질적 요소와 이것들을 다루는 인간의 사고방식·행동 양식·사회 규범·가치관 등의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관심[7]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뜻하는 사고 작용,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및 긍정적 태도를 뜻하는 감정 작용, 인류복지에 대한 공헌을 뜻하는 행동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8]을 사회문화적 관심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사회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협력과 공유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9]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10]. Yoon[11]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인류의 번영과 기본권 보장 및 실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세계의 상호의존적 체계와 사회정의, 정체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지식,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공감하고 반성하고 협력하여 갈등의 해결 등 복잡하고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하는 스킬,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태도,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의지의 네 가지 개념을 세계시민의식으로 보았다. 최근 간호교육에서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이 세계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및 행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관심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국제적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시민적 간호사(Citizen nurse)로 성장[12]하도록 도울 것이다.

Covid-19는 사회에 의료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간호인력 확충' 해결방안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 비해 2021년 약 2배가 되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15.4%이고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45.5%[14]로 간호사의 이직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수급불균형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간호단독법' 제정이 선거시기마다 필수적인 민생법안으로 등장하고 간호계가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간호사들은 여성으로 결혼과 육아문제 등으로 이직을 선택하고 이직 후 재취업을 하려해도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15],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면허간호사 중 46.2%만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16]. 병원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많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크게 실효성이 없어 최근에는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잔류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간호인력이 장기간 재직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여 조직 잔류를 증가시키는 전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17]. 연구의 대부분이 간호사와 신규간호사 대상이고 간호대학생 대상의 간호직 유지 의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내적요인이 간호직 유지의도에 긍정적 영향[18]을 준다고 하니 학부 시기부터 졸업 후 자신이 취업한 간호조직에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남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간호인력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인사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인 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체인원 비용절감 및 우수한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간호조직의 유효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 요소인 간호직 유지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 간호직 유지의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 간호직 유지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C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를 구성하여 선착순 300명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9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치적 관심

정치적 관심은 Shin & Yang[19]이 개발한 것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Shin[3]이 수정·보완한 도구에 Kim et.al.[20]의 정치관심 도구문항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Shin & Yang[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5이었고, Shin[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2 경제적 관심

경제적 관심은 Cho[21]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의식, 경제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본 도구는 8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21]의 연구에서는 내적타당도만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2.3.3 사회문화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은 Yoon[11]이 개발한 대학생용 세계 시민의식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1 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지식 5문항, 기술 5문항, 태도 5문항, 실천의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4 간호직 유지의도

간호직 유지의도는 Iverson[22]이 개발하고 Lee[23]가 번안·수정·보완한 3문항 5점 Likert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직 유지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또한 첫 번째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기간과 평생 간호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이직을 몇 번 정도 생각하는 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 [24]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의 수준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의 차이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Scheffé 분석을 하였다.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BUIRB-202208-HR-

018).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 및 3년간 보관 된 후 연구자가 직접 삭제 처리함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출생연도, 성별, 종교유무, 학년, 주성장지, 학과결정자, 사회경제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지지 정당유무를 조사하였다. M세대에 해당하는 학생이 33명(11.3%)이었고 Z세대에 속하는 학생이 258명(88.7%)이었다. 여학생이 230명(79.0%), 남학생이 61명(21.0%)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180명(61.9%)이었다. 1학년이 140명(48.1%)이었고 주성장지로는 대도시가 18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268명(92.1%)이었고 기타에는 친구와 가족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187명(64.3%)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거나 낮다는 경우도 14.1%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81명(62.2%)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232명(79.7%)이었다. 간호직 유지의도에 대한 질문 중 '첫번째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기간'으로는 3년 이상이 111명(38.1%)과 1-3년 이내가 99명(34%)으로 가장 많았다. '평생동안 간호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이직의도'에서는 1-2회가 162명(55.7%)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 정도

대상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 및 간호직 유지의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정치적 관심은 5점 만점에 평균 3.35점이었고 경제적 관심은 3.76점이었으며 세부항목인 경제의식은 3.72점, 경제지식은 3.80점이었다. 사회문화적 관심은 4.15점이었으며 세부항목인 지식은 4.33점, 기술은 3.88점, 태도는 4.40점, 실천의지는 3.99점이었다. 간호직 유지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0점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91)

Variables	Categories	N	%
Year of birth	1981-1985(M)	4	1.4
	1986-1990(M)	7	2.4
	1991-1995(M)	22	7.6
	1996-2000(Z)	76	26.1
	2001-2005(Z)	182	62.5
Gender	Male	61	21.0
	Female	230	79.0
Religion	Yes	111	38.1
	No	180	61.9
Grade	1st	140	48.1
	2nd	29	10.0
	3rd	82	28.2
	4th	40	13.7
Main grown up area	Large city	184	63.2
	Small city	108	34.4
	other	7	2.4
Decision maker of major	Self	268	92.1
	Parents	21	7.2
	other	2	0.7
Socioeconomic Level	Very high	2	0.7
	High	61	21.0
	Moderate	187	64.3
	Low	36	12.4
	Very low	5	1.7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25	8.6
	Satisfied	156	53.6
	Moderate	92	31.6
	Dissatisfied	14	4.8
	Very dissatisfied	4	1.4
Favorite political party	Yes	59	20.3
	No	232	79.7
Desired working period	<1 year	6	2.1
	1-3 year	99	34.0
	>3 year	111	38.1
	>5 year	44	15.1
	>10 year	31	10.7
Intention of turnover plan	1-2 times	162	55.7
	3-4 times	115	39.5
	>5 times	14	4.8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study variables

(N=291)

Variables	Mean±SD	Range
Political interest	3.35±0.96	1 ~ 5
Economic interest	consciousness	3.72±0.53
	knowledge	3.80±0.56
	Total	3.76±0.47
Sociocultural interest	knowledge	4.33±0.51
	skill	3.88±0.61
	attitude	4.40±0.54
	behavioral intention	3.99±0.66
	Total	4.15±0.45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3.40±0.98	1 ~ 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검증을 살펴 본 결과 정치적 관심은 종교유무($t=6.536, p=.011$)와 지지하는 정당유무($t=28.621,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관심은 대학생활 만족도($F=2.824, p=.025$)와 지지하는 정당유무($t=7.075, p=.00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문화적 관심에서는 성별($t=11.217, p=.001$), 종교유무($t=16.265, p=.000$), 대학생활 만족도($F=8.386,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직 유지의도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F=2.660, p=.03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 그룹이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 그룹에 비해 사회문화적 관심 수준이 높아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른 변수의 사후 분석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3.4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관심은 경제적 관심($r=.365, p<.01$), 사회문화적 관심($r=.37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경제적 관심은 사회문화적 관심($r=.53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간호직 유지의도는 사회문화적 관심($r=.12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정치적 관심($r=-.019, p>.05$)과는 음의 관계 및 경제적 관심($r=.073, p>.05$)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세부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치적 관심은 경제의식, 경제지식, 사회문화적 지식·기술·태도·실천의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문화적 관심은 모든 제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직 유지의도는 사회문화적 관심($r=.122,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실천의지($r=.158, p<.01$)와 태도($r=.131, p<.05$) 항목이 유의하였다. (Table 4).

4. 논의

미래 간호분야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MZ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level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91)

Variables	Categories	Political interest		Economic interest		Sociocultural interest		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Mean ±SD	t/F (ρ) Scheffé	Mean ±SD	t/F (ρ) Scheffé	Mean ±SD	t/F (ρ) Scheffé	Mean ±SD	t/F (ρ) Scheffé
Year of birth	1981-1985(M)	3.25±.58	1.544 (.190)	3.91±.64	.400 (.809)	4.40±.22	1.828 (.124)	3.67±.94	.233 (.920)
	1986-1990(M)	3.75±.68		3.93±.38		3.92±.32		3.43±.57	
	1991-1995(M)	3.77±.79		3.78±.42		4.15±.38		3.32±.98	
	1996-2000(Z)	3.32±1.01		3.73±.47		4.07±.50		3.34±1.10	
	2001-2005(Z)	3.30±.96		3.76±.48		4.19±.43		3.43±.94	
Gender	Male	3.17±.91	2.694 (.102)	3.79±.49	.285 (.594)	3.99±.46	11.217 (.001)	3.35±1.01	.241 (.624)
	Female	3.40±.97		3.75±.47		4.20±.43		3.42±.97	
Religion	Yes	3.53±.90	6.536 (.011)	3.82±.49	2.86 (.092)	4.28±.44	16.265 (.000)	3.33±1.03	1.030 (.311)
	No	3.24±.98		3.72±.46		4.07±.43		3.45±.94	
Grade	1st	3.21±.92	2.380 (.070)	3.77±.44	.077 (.972)	4.18±.42	.881 (.451)	3.38±.90	.383 (.765)
	2nd	3.37±.93		3.76±.35		4.03±.41		3.29±1.14	
	3rd	3.56±.98		3.76±.55		4.15±.50		3.49±.96	
	4th	3.39±1.00		3.73±.50		4.15±.44		3.38±1.15	
Main grown up area	Large city	3.42±.96	1.491 (.227)	3.76±.47	.059 (.943)	4.19±.45	1.983 (.139)	3.40±1.02	1.047 (.352)
	Small city	3.22±.94		3.75±.48		4.11±.43		3.45±.89	
	other	3.36±1.10		3.77±.55		3.93±.65		2.90±.92	
Decision maker of major	Self	3.35±.95	.101 (.904)	3.76±.47	.116 (.891)	4.16±.44	.523 (.593)	3.41±.96	.045 (.956)
	Parents	3.31±1.08		3.79±.50		4.11±.55		3.35±1.13	
	other	3.63±.88		3.63±.71		3.86±.63		3.50±1.65	
Socioeconomic Level	Very high	3.88±1.59	.295 (.881)	4.00±.18	.273 (.896)	4.27±.28	1.127 (.344)	3.67±.94	1.135 (.340)
	High	3.33±1.01		3.77±.59		4.21±.44		3.36±.93	
	Moderate	3.37±.92		3.76±.44		4.16±.44		3.48±.94	
	Low	3.24±1.04		3.71±.44		4.02±.48		3.12±1.22	
	Very low	3.40±1.23		3.83±.33		4.17±.50		3.20±1.17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a	3.41±1.12	.905 (.461)	3.91±.49	2.824 (.025)	4.49±.34	8.386 (.000)	3.95±.80	2.660 (.033)
	Satisfied ^b	3.42±.96		3.81±.43		4.19±.42		3.41±1.01	
	Moderate ^c	3.27±.91		3.66±.52		4.07±.46		3.30±.98	
	Dissatisfied ^d	3.14±.68		3.58±.46		3.77±.43		3.07±.71	
	Very dissatisfied ^e	2.81±1.84		3.66±.47		3.89±.54		3.25±.32	
Favorite political party	Yes	3.92±.91	28.621 (.000)	3.90±.45	7.075 (.008)	4.24±.46	2.947 (.087)	3.26±1.08	1.622 (.204)
	No	3.21±.92		3.72±.47		4.13±.44		3.44±.95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정치적 관심 수준은 평균 3.35점(최대 5점)이었으며 선행연구[3,25,26] 평균 2.56-3.18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올해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뉴스와 정책을 접할 기회가 많아 정치적 관심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관심의 평균은 3.76점(최대 5점)이었으며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의 연구 [21]에서는 경제의식은 2.84점이고 경제지식은 2.24점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지식이 3.78점, 경제의식이 3.71점으로 모두 높은 수준이었고 경제지식이 경제의식보다 높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포털 사이트, 유튜브, 개인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경제관련 지식의 습득과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이른 은퇴를 원하는 MZ 세대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사회문화적 관심은 평균 4.15점(최대 5점)이었으며 간호학과 3, 4학년 대상의 연구[25,27]에서는 평균 3.89-3.93점(최대 5점)이었고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 [12,28]에서는 2.88-3.73으로 본 연구대상자와 간호대학생의 사회문화적 관심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학과의 학습성과 중 글로벌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비교과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글로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간호직 유지에 대한 평균은 3.40(최대 5점)이었으며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의 연구[29]에서는 평균 5.56점(최대 8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았다.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17,30,31]에서는 3.0-3.1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간호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정치적 관심이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91)

	P. I.	E. I. -consciousness	E. I. -knowledge	E. I.	S. I. -knowledge	S. I. -skill	S. I. -attitude	S. I. -behavioral intention	S. I.	I. N. J.
P. I.	1									
E. I. -consciousness	.350**	1								
E. I. -knowledge	.284**	.495**	1							
E. I.	.365**	.855**	.874**	1						
S. I. -knowledge	.312**	.453**	.383**	.482**	1					
S. I. -skill	.385**	.347**	.395**	.430**	.456**	1				
S. I. -attitude	.194**	.406**	.368**	.447**	.550**	.359**	1			
S. I. -behavioral intention	.266**	.265**	.265**	.306**	.431**	.367**	.571**	1		
S. I.	.379**	.470**	.454**	.534**	.769**	.718**	.795**	.792**	1	
I. N. J.	-.019	.018	.104	.073	-.016	.083	.131*	.158**	.122*	1

* $p < .05$, ** $p < .01$.

P. I.=Political Interest, E. I.=Economic Interest,

S. I.=Sociocultural Interest, I. N. J.=Intention of maintaining the Nursing Job

높았다. Lee et al.[26]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년, 종교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정치적 관심 수준이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학교가 기독교 중심의 대학으로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MZ세대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정치적 정보를 얻고 커뮤니티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정치적 지식이나 관심이 높았다[4]는 연구결과와 같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가 정치적 관심이 높았다. 경제적 관심은 대학생활만족도와 지지정당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정치적 관심이 높으면 정치참여 수준도 높았다는 연구결과[25]를 통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경제적 관심도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문화적 관심에서는 여성이고 종교가 있는 경우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Lee[25]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주거지역, 경제수준, 투표경험, 학생단체, 정당소속여부 등의 변수와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본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직 유지의도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의 평균값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 대상의 Yun[17]의 연구에서는 희망부서 배치나 직무만족도가 잔류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Lee[3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임상경력에서, Kim[31]의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헌부서경력, 직위, 월수입, 인터뷰경험에 따라 잔류의도에 차이가 있었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Choi[29]의 연구에서는 병원으로의 진로계획, 높은 연봉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장기근무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하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나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만족도는 간호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어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학습환경 조성을 제공한다면 간호직 유지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치적 관심은 사회문화적 관심과 경제적 관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간호직 유지의도와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관계($r = -.019$)로 나타났다. 경제적 관심은 사회문화적 관심과 상관관계수($r = .534$)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간호직 유지의도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직 유지의도는 사회문화적 관심에서 상관관계($r = .122$,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설명은 어려운 상황이나 연구를 통해 간호직을 유지하는데 사회문화적 관심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간호직 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 수준에서는 정

치적 관심의 수준이 가장 낮아 정치적 관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계의 현안이나 이슈 등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6,32].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29세 이하의 금융이해력은 62점정도 [33]라고 하니 대학생에게 금융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위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공적인 재무생활과 올바른 재무인식[34]을 가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경제 이해력 수준도 높아지고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잘 할 수 있으므로[35] 간호대학생들에게도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신용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간호직 유지의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은 사회문화적 요소 중 실천적 의지와 태도였는데 간호대학생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및 타인의 감정과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는 잘 가지고 있어 간호직을 유지하는데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천의지는 부족하므로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훈련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년 8월-9월 C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과 간호직 유지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각 평균은 정치적 관심 3.35점(최대 5점), 경제적 관심 3.76점(최대 5점), 사회문화적 관심 4.15점(최대 5점), 간호직 유지의도 3.40점(최대 5점)이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치적 관심은 사회문화적 기술의 상관관계수($r=.385, p<.01$)가 높았고 경제적 관심은 전체 사회문화적 관심이 가장 상관관계수($r=.534, p<.01$)가 높았다. 간호직 유지의도와와의 상관관계는 사회문화적 관심($r=.122, p<.05$), 세부항목인 실천의지($r=.158, p<.01$)와 태도($r=.131,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유지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회문화적 요소이었으며 사회문화적 태도와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간호직 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을 포함한 반복연구와 전문

직업으로 간호직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및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전국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대상의 확대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University Tomorrow Research Institute. (2021). Millennials-Gen Z Trend 2022. Seoul : Wizdumhouse.
- [2] J. Y. Heo.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Consciousness*.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http://www.riss.kr/link?id=T15669376>
- [3] J. S. Shin.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edia Us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http://www.riss.kr/link?id=T12892284>
- [4] E. Y. Joe. (2012). *How Internet Use Patterns of High school students influence their Political Awarenes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2845292>
- [5] I. S. Heo, B. M. Choi, & J. H. Kim. (2005) A study on survey of the teachers: economic recognition and awareness at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econom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3(2), 277-312.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347794>
- [6] B. M. Cho, J. Y. Kim, B. C. Cho, & S. H. Ahn. (2004). An Analysis of Economic Conscience and Opinion to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Social Studies,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11(1), 51-81. <http://www.riss.kr/link?id=A75020841>
- [7] naver dictionary: <https://dict.naver.com/>
- [8] J. E. Crandall. (1975). A scale for social interest.

-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1(2), 187-195.
- [9] M. J. Kim. (2016).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Cultural Propensity on the Global Citizenship in the Pluralistic Society*.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4018300>
- [10] J. E. Lee, & D. H. Lee.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rch for and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social interes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1(6), 145-164. DOI : 10.15703/kjc.21.6.202012.145
- [11] S. H. Yoon. (2017). *Developing a Global Citizenship Indicator for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4390235>
- [12] J. G. Kim. (2019).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ocial justice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nk?id=T15011199>
- [13] Korea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 [14]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20)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
- [15] Y. J. Lee, & G. Y. Oh. (2022). Review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 *Democratic Legal Studies*, Vol. 78 145-178. DOI : 10.15756/dls.2022..78.145
-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2021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http://www.mohw.go.kr>
- [17] M. J. Yun. (2018). *Effects of Hospit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 Environment of Nurses' Intent to Stay at the Current Hospital*.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T14726116>
- [18] H. J. Bae, & K. H. Kang. (202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Based on Region and Size of Hospital *Crisisonomy* 18(5), 79-94. DOI : 10.14251/crisisonomy.2022.18.5.79
- [19] D. W. Shin, & H. S. Yang.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media properties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of voter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3(2), 137-159.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82514781>
- [20] J H. Kim, M. G. Kim, & Y. J. Jin. (200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Media Use on the Evaluation of the Leading Candidate in the Korean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 Analysis of the Panel Data with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44, 76-107. <http://www.riss.kr.libproxy.bu.ac.kr/link?id=A77007209>
- [21] B. C. Cho. (2006). A Study on Economic Conscience·Knowledge·Behavior of Student Teacher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4(3), 192-222. <http://www.riss.kr/link?id=A35498645>
- [22] R. D. Iverson. (1992). *Employee intent to stay : An empirical test of a revision of the Price and Mueller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City, USA.
- [23] M. S. Lee. (2013). *The Effect of Hotel Employees' Job Embeddedness on Intention to Stay and Extra-Role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http://www.riss.kr/link?id=T12892284>
- [24] SPSS IBM Corp. Released 2011.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NY : IBM Corp. <https://ibm-spss-statistics.software.informer.com/20.0/>
- [25] J. I. Lee. (2020). A Convergence Study 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Global Citizenship as influenc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2), 391-400. DOI : 10.15207/JKCS.2020.11.12.391

- [26] M. K. Lee, J. Y. Lim, & S. H. Lim. (2021). Effect of Nursing Student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Non-nursing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57(2), 113-132.
DOI : 10.37243/kahms.2021.57.113
- [27] J. H. Ko, M. J. Kang, & H. J. Kim. (2019). The Convergent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mpathy and Global Citize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9), 108-116.
DOI : 10.5762/KAIS.2020.21.8.178
- [28] M. K. Min. (2004). *Social-Cognitive Model of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 for Korea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nk?id=T13252696>
- [29] S. K. Choi. (2022). The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on long-term nursing intentions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5), 413-424.
DOI : 10.15207/JKCS.2022.13.05.413
- [30] M. H. Lee. (2014). *A Path Anlysis Among the Burnout and Intent to Stay of the Infection Control Nurse : Verification of Job Demand-Resource model*, Doctoral Dissertation. Deajeon University, Deajeon .
<http://www.riss.kr/link?id=T13415231>
- [31] C. H. Kim. (2016). *Factors Affecting Residual Intention of Nurses Working at a General Hospital*. Master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http://www.riss.kr/link?id=T13990096>
- [32] C. L. Vandenhouten, C. L. Malaker, S. Kubsch, et al. (2011).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gistered nurses.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12(3), 159-167.
DOI : 10.1177/1527154411425189
- [33]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7).
<https://www.fss.or.kr/fss/main/main.do>
- [34] S. W. Kim, & H. K. Lee. (2018). An inquiry into Financial Literacy and their Perception of the Necessity for Credit Education of Young Working Adults 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inancial Consumers*, 8(3), 5-38.
DOI : 10.30592/KAFC_JFC.08.03.01
- [35] S. E. Park, & H. J. Noh. (2017).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terest in Economy, Economic Literacy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of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24(3), 109-128. DOI : 10.5762/KAIS.2020.21.11.301

구 옥 희(Ok-Hee Koo)

[정회원]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리더십, 간호윤리, 인성, 전문직 관
- E-Mail : koh0528@bu.ac.kr